

‘광주연극제’ 3월 5일~11일
빛고을시민문화관·광산문화예회관
까치놀·바람꽃 등 5개 극단 출전
대상 ‘대한민국 연극제’ 참가

빛고을 광주를 연극으로 물들일 ‘예술 축제’가 열린다. 극단 까치놀, 바람꽃, 시민, 진달래피네, 청춘 등 총 5개 극단이 출전에 대상 상금 1700만 원(예상)을 놓고 경합할 예정이다. 1등을 차지한 팀은 6-7월께 인천에서 열리는 ‘제43회 대한민국 연극제’에 지역 대표로 참가해 대통령상에 도전할 수 있다.

광주연극협회(회장 고난영)가 제39회 ‘광주연극제’를 오는 3월 5일부터 11일까지(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산문화예회관에서 펼친다.

먼저 5일에는 극단 시민의 ‘죄와 벌’이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상연된다. 도스토예프스키 원작이며 주인공 두나와 소냐가 시베리아에서 만난 뒤 라스콜리코프라는 인물의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원작에서 라스콜리코프는 1860년대 ‘잡계급 지식인 세대’를 표상한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불합리한 사회 구조에 저항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했던 것처럼, 연극 또한 부조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광산문화예회관에서 펼쳐지는 극단 문화예술공방 바람꽃 작 ‘우리의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흥미로운 시놉시스로 이목을 끈다. 지역 출신의 권지에 작가 작품이며 1935년 광주극장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이야기.



광주연극협회가 3월 5~11일 ‘제39회 광주연극제’를 빛고을시민문화관·광산문화예회관에서 펼친다. 지난해 대상 수상작인 연극문화공동체 DIC ‘하녀들’(사진 왼쪽)과 까치놀 ‘꽃머느리’.



(광주연극협회 제공)

봄날 광주, 연극으로 물들인다

1935년 9월, 경성의 한 극장형 술집에서 공연을 하던 무등예술단은 광주극단 내부 공사를 도우며 개관 전야제 공연 기회를 얻는다. 공연 준비와 세트 제작으로 인해 정신이 없던 와중, 머리에 총을 맞은 일본인 한 명이 극장에서 발견되면서 혼란이 시작된다. 단원들은 범인을 찾기 위해 팔을 걷기 시작하는데..

광주읍에서 광주부로 승격하던 날 개관한 ‘광주극장’은 국내 유일하게 남은 단관극장의 역사 그 자체다. 작품은 로컬 자원을 극화해 긴장감 넘치는 서스펜스로 표현한다.

“과연 이 전쟁은 누구를 구원하려는 것일까?”

이어 7일에는 극단 진달래피네 ‘흑색소음’이 빛고을시민문화관 무대에 오른다. 오래된 다리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두 군인의 상황을 초점화, 전쟁의 본질과 오늘날 의미를 사유하게 만든다. 창작 초연작이며 연출가 최민이 극작·연출.

군인인 ‘청’과 ‘홍’은 오래된 다리 양옆에 배치된 채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적대시하지만, 두 사람도 결국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명령에 복종하는 ‘소모품’에 불과하다.

작품은 교착된 전선 속에서 점차 상부의 명령에 의문을 품는 개인의 주체성을 다룬다. 대치하던 둘

이 ‘곧 승리한다’는 상부의 무전을 거역한 뒤, 구조적 폭력에 저항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극단 청춘은 8일 광산문화예회관에서 ‘용을 잡는 사람들’을 선보인다. 마을을 해하는 검은 용을 잡기 위해 네 명의 젊은이들이 천왕산을 오르고 40년 세월을 그곳에서 보낸다는 내용이다.

또한 11일 같은 곳에서 극단 까치놀은 ‘꽃머느리’를 펼친다. 외딴섬에 인신매매되어 팔려 온 처녀를 둘러싸고 3형제가 벌이는 애육을 다룬 작품.

광주연극협회는 이와 함께 ‘광주연극제 관객심사단’도 모집한다. 전문 심사위원이 주는 상과 별개

로 ‘최고의 캐릭터상’, ‘베스트 케미상’ 등을 관객 시선에서 선정하게 된다.(다섯 작품 모두 관람 가능해야 지원)

광주연극협회 고난영 회장은 “대한민국연극제에 출전할 광주 대표를 결정하는 경연이다보니, 다소 예민하거나 경직될 수 있지만 연극에 관심 있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며 “고전부터 현대, 1930년대 광주를 아우르는 작품들은 저마다 주제와 연출, 표현 방식이 상이해 여러 취향을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무료 관람, 네이퍼폼 또는 인스타그램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다산박물관에서 감상하는 ‘다산 사계’

28일까지 지역작가 초대전

다산(茶山) 정약용은 조선 후기 대표 실학자다. 예술, 지리학, 의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능통해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평가가 따른다.

강진에는 다산 정약용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건립된 다산박물관이 있다. 지난 2014년 세워진 이곳에는 갤러리, 다목적홀, 체험교실, 뮤지엄샵 등 시설이 있다.

박물관에서는 상설전시를 비롯해 특별전시, 지역작가 초대전 등이 열린다. 현재 이곳에서는 ‘다산 사계’를 주제로 지역작가 초대전이 진행 중이다. 오는 28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김성우, 김종안, 김종철, 김충호, 백남태, 안은희, 양수근, 이강숙, 이지호, 이철규, 정관용, 정인순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작가들의 독특한 심미안과 예술세계를 가능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나게 된다.

김충호 작가의 ‘향’은 붉은 화폭을 배경으로 의연하게 선 소나무를 초점화한 작품이다. 전체 소나무의 형상을 표현한 것이 아닌 중간 부분의 형상을 이미지화했다. 표면이 갈라진 소나무껍질과 가지가 부러져 삭성인 남은 소나무 몸체는 지난한 세월을 견뎌온 인고의 흔적을 가능할 수 있다. 소나무 저편에 드리워진 붉은그늘은 노을은 황혼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 같아 오래도록 시선을 붙든다. 그림에도 소나무는 의연하다. ‘향’은 그런 소나무와 같은



이지호 작 ‘October’

정경의 상징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작가는 말하고 있는 듯 하다.

이지호의 ‘October’는 늦가을 은행나무 숲에 수북이 떨어진 은행잎을 묘사한 그림이다. 만추로 접어드는 시기의 은행잎은 햇노란 빛을 발하는데 화면 속 색은 짙은 남색이다. 흡사 낭만이 거세된, 모든

수사를 털어버린 존재 자체를 드러낸 것 같다. 어두운 색감의 은행잎 사이로 말라비틀어진 은행잎도 군데군데 섞여 있다. 화면 왼쪽 하단에 노란색 은행잎 하나가 드리워져 있는데, 그 자체로 강렬한 이미지와 색감을 발한다. 작품은 10월 너머의 어떤 사유를 이야기하는 듯 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유키 후타미 트리오 한국투어 in 광주’

3월 21일 아트스페이스 흥학관

재즈의 본고장 뉴욕을 중심으로 50개 이상 도시를 순회하고 있는 일본 재즈피아니스트 유키 후타미가 광주를 찾아온다. ‘훌륭한 재즈 피아니스트를 위한 헌정’이라는 주제로 재즈 거장들을 기리는 연주회다.

애드뮤직이 ‘유키 후타미 트리오 한국투어 in 광주’를 오는 3월 21일 오후 7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에서 펼친다. 트리오 멤버인 박진교, 이성구가 함께 출연해 스윙, 비밥 시대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일본 사이타마 출신의 재즈피아니스트 유키 후타미는 평생 스윙재즈 거장을 탐구해 온 뮤지션이다. 2012년에는 오스카 피터슨에게 헌정하는 앨범 ‘Banaz Oscar’를 발표해 ‘일본 타임즈’에 게재된 바 있으며, 이후 뉴욕의 라과디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부했다. 뉴욕 생활 중에는 해외 뮤지션과 교류하면서 앨범 ‘문라이트 세레나데’를 발매해 주목받았다.

이 외 인도네시아 대학교에서 2년여 간 재즈이론과 즉흥 연주·피아노 랩과 하모니 등을 강의했다. 2017년 부쿠레슈티 국제 콩쿠르에서는 최우수 밴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키 후타미

협연하는 박진교(베이스)는 재즈 레전드 론 카터에게 사사받은 뒤, 뉴욕대·한양대 대학원 재즈학과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울러 이성구(드럼)는 뉴욕대 재즈 스테디를 석사 졸업했으며 현재 한양대 겸임 교수로 있다. 흥학관 재개관 프로젝트를 이끈 박수용 호신대 교수는 “유키 후타미는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중국 등에서 70여회 이상 공연을 펼치는 등 재즈 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재즈 피아니스트”며 “클래식, 팝, 애니메이션과 영화음악 등 폭넓은 작업을 통해 음악적 영역을 넓혀 온 만큼 이번 공연에서도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일반석 3만5000원(학생 3만 원). 유선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우리 아리랑’ 한국적 정서 화폭에 김윤숙 개인전 3월 2일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원초적인 콘텐츠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아리랑’을 빼놓을 수 없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면서 한국인의 정서를 대변하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아리랑만큼 우리 민족의 한과 그리움을 보편적인 노랫말과 곡조로 표현한 노래는 없다.

김윤숙 화가가 ‘우리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개인전을 연다. 3월 2일까지 양림미술관.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은 ‘우리 아리랑-아침의 나라’를 비롯해 ‘아! 대한민국-사계’, ‘한반도 평화의 물길’, ‘태극의 빛으로 1,2,3’, ‘아리랑-아버지의 봄날’ 등이다. 작품의 표제들이 보여주듯 작가의 관심은 우리 것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다.

김 작가는 “우리의 다양한 문화 가운데 아리랑만큼 특수성과 보편성을 내재한 콘텐츠는 없다”며 “이번 전시에서는 ‘아리랑’을 토대로 확장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침의 나라’는 바다를 배경으로 수려한 자연과 고궁의 풍경을 담고 있다. 하늘에 펼쳐진 거대한 태극의 문양은 넉넉함과 유순함, 백의(白衣)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아!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사계 풍광을 한반도에 배치한 작품이다. 형형색색의 꽃이 핀 국토와 초록 기운이 넘쳐나는 풍경은 4계의



‘대한민국’

시간을 품고 있다.

‘인생 아리랑-아버지의 봄날’과 ‘아리랑 아리랑-청춘의 용화’가 주는 옛것과 고전적인 미의 조화, 비구상 작품 ‘태극의 빛’이 발하는 아련한 감성도 눈길을 끈다.

김이전은 “작가는 아리랑을 전시 주제로 삼기 이전부터 이미 작품의 주제로 표현해 왔다. 삶 자체, 문화 자체가 아리랑이기 때문”이라며 “전시는 작가의 우리 아리랑을 만나서 소통하는 기회다”라고 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재단 문화상품 ‘들락’,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참가

26일~3월 2일 삼성동 코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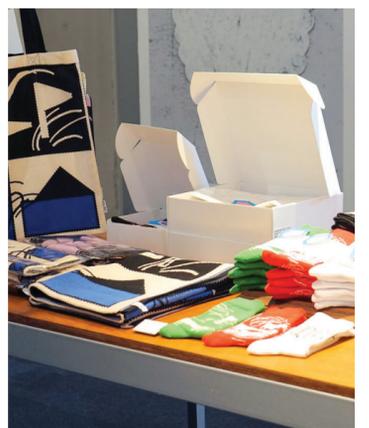
서울리빙디자인페어는 국내 최대를 자랑하는 리빙 분야 전시 박람회다. 리빙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가구를 비롯해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이 참가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 사장 김선옥)이 올해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 참가, 문화상품점 ‘들락’을 소개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ACC재단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 중인 이번 페어(26일-3월 2일)에 아시아 개성과 문화가 깃든 상품을 선보인다.

전시 부스에는 새롭게 출시한 도어매트를 비롯해 룸슬리퍼 등 시즌 그래픽 상품 등 25종 49개 품목을 비치해 방문객들을 맞을 예정이다. (전시 기간 현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펼친다.)

김선옥 재단 사장은 “이번 리빙디자인페어 참가는 그동안 재단의 문화상품점 ‘들락’이 아시아 문화 예술가들과 협업한 콘텐츠들을 선보이는 자리”라며 “아시아 문화를 모티브로 한 개성적이면서도 트렌디한 상품을 통해 아시아 문화를 많은



‘들락’ 상품 이미지.

(ACC재단 제공)

이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2003년부터 소비자의 감성, 일상생활 유용성 등을 고려한 다채로운 상품들을 출시해오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